

뚝뚝 떨어지는 쌀값...10년 전 가격 돌아가나

지난해 10월 22만원 최고점 이후
현 거래가 18만원 평년가격 아래
햅쌀 수확 코앞...추가격리 시급

산지 쌀값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정당국은 3차 시장격리를 고민하고 있지

만, 재고쌀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햅쌀 출하도
코앞으로 다가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 있다.

7일 전남도와 전남농협 등에 따르면 지속적인
하락세에도 그동안 평년 가격을 웃돌던 산지 쌀
값이 최근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80kg당 산지 쌀값 평년 가격은 18
만8,000원이었으나 이날 현재 거래가격은 18만
원이다.

지난해 10월 22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산지

쌀값은 이후 지속해서 떨어졌으나 2차례 시장격
리 등에 힘입어 그동안 평년 가격 이상을 유지했
었다.

하지만 재고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다시 이어졌고 결국 평년가격 이하로 낮아졌다.

전국 쌀 재고량은 지난달 말 현재 95만9,000t

으로 이중 전남 쌀 재고량은 14만7,000t이다.

전남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9만2,000t이나

늘었고 예년보다 56%나 증가했다.

의 쌀을 격리했지만 '반짝효과'에 그쳤고 하락
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다음 달께 햅쌀이
나올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해 자
칫 18만원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남도는 18만원을 산지 쌀값 하락의 마지노
선으로 보고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10만
이상의 3차 시장격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게 돼 더는 쌀값이 떨어
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
에서도 추가격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격리에도 쌀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쌀
값 하락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쌀값 하락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인 쌀 산업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며 "정
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소비자들도 쌀소비
에 함께 해주셔야 농가도 살고 식량안보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산 기사

'10일 빠른 고수온' 전남도 피해 예방 총력

상황실·현장대응반 운영

전남도가 예년보다 빠른 고수온 주
의보 발령에 대응해 피해 예방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
원은 전남 오후 2시를 기해 함평만, 도
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등 5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
당 해역은 지난해 대비 열흘 빠르게
수온이 23.6~29.7도에 도달했다.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1,405
양식어가가 어류 7,000만 마리, 전복
2,000만 마리, 고막 등 어패류 3만
3,285톤을 키우고 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
으로 하는 고수온 대책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면
서 피해 우심해역 어가를 방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또 10개 시군에 15억원의 들여 양
식장에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차광
막 등을 지원하는 등 총 7종 1만938
대의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해 신속
하게 가동하도록 했다. 여수, 고흥,
완도 등 우심해역에는 실시간 수온
측정기를 83곳에 설치, 전남바다알리
미앱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어
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
는 등 사전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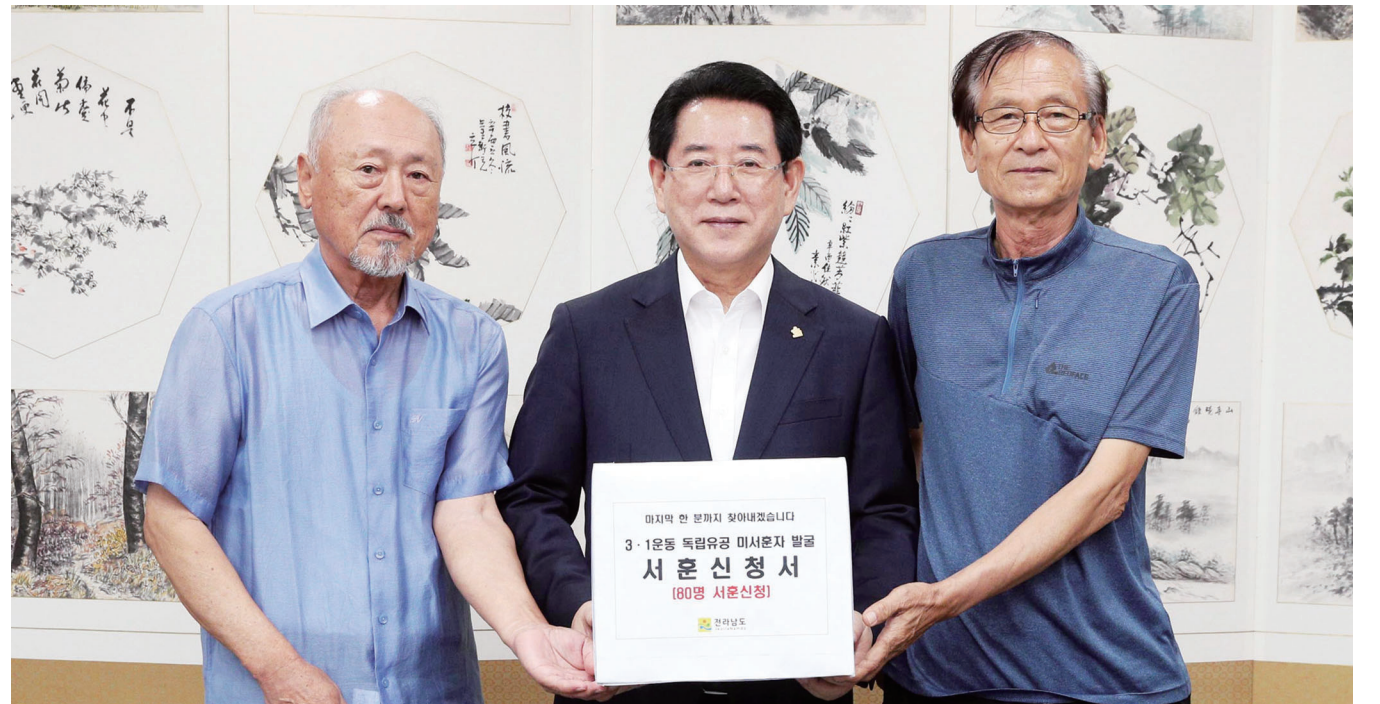
전남도는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복, 우
럭, 넙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서는 사육량 조절,
먹이공급 중단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
고 가두리 그물을 청소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계수온이
29도인 넙치와 우럭, 30도인 전복,
31도인 감성돔 등을 양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어업인 보험료
자부담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보험료 지원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추가경
정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먹이공
급 중단, 조기출하 등 자기어장 지키
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선 지난해 7월 15일부
터 8월 26일까지 지속된 고수온의 영
향으로 11개 시군, 3,759어가에서
175억원의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
했다. /오선우 기사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 접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3·1 독립운동 미서훈자 유족이 7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국가보훈처에 접수할 3·1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보건연, 원숭이두창 24시간 신속 검사

질병관리청서 진단법 이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관심'에서 '주의'
로 격상된 원숭이두창의 진단검사를 질
병관리청에서 이관받아 직접 실시한
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원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진
단검사 교육을 수료하고, 검사법 숙련
도 평가에서 합격함으로써 자체 검사
능력을 확보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외 입국자 및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출검사법으로 신속하게 처리

해 광범위한 전파가능성에 대비할 방침
이다.

원숭이두창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서 풍토병화 됐으나 2022년 5월 스페
인,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이례적으
로 발생해 4일 현재 국내 확진자 1명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총 59개 나라에서
6,157명이 확진됐다. 이에 질병관리청
은 6월부터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
시력을 강화하고 있다.

검역되면 1~2주간(평균 7~14일)의
잠복기를 지나 38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및 피로감 등으로 시작해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증상이 나타난

다. 현재 상용화된 백신 및 치료제는 없
으며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으
로 치료하고 있다.

임원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
병조사과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이 3~
6%이고,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이 아니므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나 접촉을 통한 전파
가 가능하니,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 시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선우 기사

정기 브리핑

신정훈 "SPC그룹-나주배 농가 상생 환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
순)은 7일 SPC그룹 산하 '던킨도너
츠'와 '베스킨라빈스'의 나주배 활용
상생제품 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발
했다.

신 의원은 전남 강남역 던킨라이브
매장에서 열린 'ESG 농가 상생 나주배
활용 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해 "나주
배 블라스트·콜라타는 행복 상생의 상
징"이라며 "기업과 농가,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고 함께 성장 시
켜주는 효과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강
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의원을 비롯, 도세
호 BRK 대표이사과 나주시청 관계자
및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다.

나주배 활용 상생제품은 SPC 계열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가 지역농
가 상생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나주
배 원예농협에서 배 원물을 공급하고
충북원예농협에서 푸레형태로 가공
해 15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한다.



SPC 측은 올해 판매량에 따라
수량이 추가될 수 있으며 향후
매년 여름 기획
상품으로 출시
될 수 있다고 밝
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브랜드 가치
가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
력을 포함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 하
겠다"고 밝혔다.

김희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비대면 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 을)
은 7일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
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했
다"고 밝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현행 재판
소 위원결정에 대한 보완입법이다.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
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
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
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 증인 신문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법원이 2차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



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대
상으론 성폭
력 피해가 심각
하고, 재판과정
에서 2차 피해
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
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사

www.hdamis.com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현대아미스그룹

현대아미스(주)	아미스(주)	(주)한솔티엘에스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능력개발원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주)아미스개발	메인기획협동조합	복지TV호남방송

회장 김우열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륵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